

마른김 수출 전국 지자체 1위 ‘미래먹거리 효자’

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특화’ 을 10월 누계 수출액 9100만불 해외 수출로 김산업 중심 기대

수산식품 김이 목포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효자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시는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해 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김산업 특화에 매진하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으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을 내걸고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목포 미래먹거리를 넘어 세계적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흥률)가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김산업 특화에 더욱 탄력을 받았다. 센터는 올해 제12회 김의 날 행사에서 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

상했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인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한-덴 해조류 교류협력 간담회, 북유럽 해조류 대규모 회의 참석 등 김관련 교류 협력을 진행했다.

지난3월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장(디테 윈더바이씨)과 현지 해양수산 새싹기업 대표 등이 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두 센터 간 해조류 연구 협업사례 구축을 논의했다.

세계적 먹거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김은 올해 120개국에 수출액 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목포 김 수출이 지난해 5500만불을 넘어 올해 7000만불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마른김 수출 전국 지자체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시 지난 10월 누계 전체 수출은 9100만불, 수산물 수출은 7200불인데 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출액



목포시가 김 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해 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김산업 특화에 매진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75%, 수산물 수출액 9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수산청과 대사관, 영사관, 일본 전국김가공협회, 전국김도매협회 등 5개 단체가 대양산단 김 가공공장을 방문하는 등 목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목포시의 김 수출 대부분은 대양산단에

집중되는데 목포시는 이곳을 김산업 진흥 구역으로 지정해 김산업을 고도화하고 김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대양산단에는 반경 500m 내 15개 김 가공업체가 있으며 2025년 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 2026년 마른김 거래소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및 마른김 거래소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목포시가 추진 중인 시설로 총사업비 1200억원의 수산식품수출단지에는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 수출 기업을 위한 36개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1300㎡ 규모로 조성될 마른김 거래소는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구매자를 위한 거래 유통망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으로, 최근 세계적 조미김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 해외 현지 김 가공공장도 마른 김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시는 김을 목포를 넘어 세계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김 산업 고도화를 통해 김 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흥률 목포시장은 “목포의 김 산업은 많은 일자리는 물론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적 먹거리가 되고 있는 김 산업 도약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초등생 대상 진로캠프 진행 목포시 드림스타트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4~6일 목포 시청소년수련원 및 수도권 일원에서 초등 학교 졸업을 앞둔 드림스타트 아동 30명이 참여해 미래의 직업을 알아보고 체험하는 등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일차는 목포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홀랜드 진로집단상담, 꿈을 위한 설계도 작성, 직업인 멘토와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2~3일차 한국 잡월드에서는 자신의 재능과 직업에 대한 흥미를 알아볼 수 있는 이색적인 직업체험활동 및 조별 직업군 미션수행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으며 아쿠아리움·롯데타워, 롯데월드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해 아동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와 마지막 동행인 이번 진로캠프가 아동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이 중학교 입학 후 진로 설계 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대성동 경로당, 증축 기념 현판식 어르신 여가 공간 확대

목포 대성동은 지난 8일 대성동 경로당(회장 차영진) 증축기념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박애란 대성동장, 조옥현 전남도의회 위원장, 송선우 시의원, 박창수 시의원, 대성동 경로당 회장단과 자생조직 회장단을 비롯해 경로당 회원 포함 4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대성동경로당 증축사업은 기존 시설의 공간 협소와 노후로, 2023년 본예산에 수립되어 지난 7월 착공됐고, 10평이 증축된 30평의 규모로 지난달 20일 최종 준공됐다.

공간이 확장된 경로당은 이용하는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친목 도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4~6일 목포시청소년수련원에서 진로캠프를 운영했다. 목포시 제공

어묵 해협 가공공장 건립 내년 상반기 착공

목포시는 목포어묵산업 추진을 위한 목포어묵 해협(HACCP,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가공공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가공공장 시설 배치 등 설계안과 어묵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은 지난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단순 원물 유통에 머물고 있는 목포 수산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목포지역에서 어획되는 미할용 어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생산해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목포어묵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입산 원육으로 제조되어 유통되는 일반 시중 어묵 제품들과 달리 국내산 원육으로 생산되는 만큼 목포어묵만의 차별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개발중인 어묵을 지난 4월 유달산 붐축제와 서울국제수산식품박람회에서 시판 중인 어묵 제품들과 정보를 가지고 평가(블라인드 테스트)한 결과 선호도조사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 목포어묵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목포어묵 해협(HACCP) 가공공장은 12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가공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연말까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66호 공급

목포시가 서산동에 위치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66호에 대한 공급을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이주민과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 옛 광장 오피스텔(서산동 13-2)을 고쳐 지

난 8월 준공했다.

각 호실(전용면적 32㎡)은 보증금 200만원과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됐으며 1~4차 입주자 모집으로 현재까지 모든 공급세대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했거나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내년 2월 초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이다. 모집 완료된 입주자는 무주택 세

대구성원이면서 철거이주민,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세대들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거주가 불안정한 철거이주민과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이다시 찾는 큰 목포’의 초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목포시 전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이웃사랑 나눔 실천



향기나는교회, 온수매트 기부

목포 유달동에 이웃사랑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향기나는교회(담임목사 박진)가 지난 7일 유달동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6가구에 온수매트를 직접 설치하고 안부를 살폈다.

목포 향기나는교회는 작년에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온수매트를 지원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같은 날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위해 서달라매 현금 30만원을 후원했다. 이에 유달동은 한부모 세대 3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연동지역사회보장협, 쌀 기부

목포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귀철)가 지난 8일 저소득층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백미 100포(10kg, 25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11일 목포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추위로 더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연동은 이날 기탁된 백미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저소득층과 경로당 8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4개소에 전달했다.

한편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 ‘산정1동 사랑나눔복지위원회’를 시발점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전통을 이어오며, 이웃사랑 나눔에 적극 앞장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